

“항상 목 마르다” 이상혁이 날면 한국 육상은 새 역사

2022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2m35로 은메달

2011 대구 대회 경보 김현섭 동메달 넘고 최고 순위

“항상 최초의 타이틀을 원하고 있어요.”
 당찬 포부를 늘 결과로 입증한다.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이번에도 한국 육상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젖혔다.
 이상혁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날아올라 은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선수의 실외 세계선수권대회 최고 성적이다.
 세계선수권대회 트랙·필드 종목에서 메달을 딴 한국 선수도 이상혁이 최초다.
 종전까지는 2011년 대구 대회 남자 20km 경보 동메달의 김현섭이 유일한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였다.
 이날 이상혁은 2m19, 2m24, 2m27, 2m30을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2m33에서 1, 2차 시기를 실패했지만 3차 시기에 바를 넘고 포효했다.
 2m35도 2차 시기에 성공한 이상혁은 무타즈 예사 바심(카타르)과 금메달을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바심은 2m19를 패스하고 2m24, 2m27, 2m30, 2m33, 2m35, 2m37을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2m37을 1차 시기에 실패한 이상혁은 바를 높여 2m39로 승부를 걸었지만, 두 차례 시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은메달 만으로도 빛났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은지는 이미 오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오른발을 다친 그는 후유증으로 오른발과 왼발의 크기 다

른 ‘짜박’이다. 이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아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188cm의 신장도 극복할 대상이었다.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들이 대부분 190cm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상혁의 ‘단신’도 불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월드 클래스로 올라선 이상혁은 한국 육상에 또 한번 새로운 역사를 선사했다.
 그의 기록 행진은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결선에서 2m35를 넘어 4위에 오른 이상혁은 한국 남자 높이뛰기 신기록이자, 한국 육상 트랙·필드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을 냈다.
 1997년 이진택이 세운 한국기록(2m34)을 24년 만에 갈아치웠고, 1985년 LA 김중일(남자 멀리뛰기), 1988년 김희선(여자 높이뛰기), 1996년 애틀랜타 이진택(남자 높이뛰기)이 작성한 종전 한국 올림픽 육상 트랙·필드 최고 성적인 8위도 훌쩍 넘어섰다.
 메달 없이도 값진 성과를 낸 이상혁의 도약은 더욱 힘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체코 후스토페체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실내투어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36을 뛰어넘어 한국기록을 6개월 만에 경신했다.
 거침없는 도전은 계속됐다.
 지난 3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는 2m34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의 세계실내육상선수권 최초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하면서 최정상급으로 우뚝



이상혁이 18일(현지시간) 미 오리건주 유진의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상혁은 2m35를 넘어 한국 육상 높이뛰기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은 2m37을 넘은 무타즈 예사 바심(카타르)이 차지해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했다.

섰다.
 지난 5월에도 존재감을 뽐내었다. 그는 도쿄 올림픽 공동 1위인 바심, 장마르토 탬베리(이탈리아)가 모두 출전한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2m33을 뛰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 선수가 다이아몬드리그 정상에 선 것이 역사 이상혁이 처음이었다.
 이제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점퍼다.
 실력이 뒷받침되는 그는 자신감도 넘친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하며 “항상 목이 마르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항상 최초의 타이틀을 원한다. 역사를 쓰고 이름을 남기고 싶다”며 새 역사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신이 한 말은 자킨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육상 최초의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안기며 더 높은 도약을 알렸다.

송세라가 해냈다...펜싱 에페 20년 만에 세계 정복

2002년 현희 이후 20년 만에 세계선수권 에페 금메달



송세라가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에페 종목 금메달을 수확했다. (사진=국제펜싱연맹 페이스북 캡처)

송세라(29·부산광역시청)가 한국에 20년 만의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에페 종목 금메달을 안겼다.
 송세라는 19일(한국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결선에서 알렉산드라 은돌로(독일)를 11-10으로 누르고 정상에 섰다.
 한국 선수가 펜싱 세계선수권 에페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건 2002년 현희 이후 20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다.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송세라는 더욱 몰든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자 에페 월드컵 개인전에서 우승했고, 3월 카이로 그랑프리대회 동메달을 따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선수권까지 정복했다.
 32강에서 율리아 스비치우(브라질)를 15-10으로 제압한 송세라는 16강에서 에스테르 무허리(헝가리)를 15-9로 물리쳤다. 8강에서는 주밍예(중국)에 14-13 신승을 거두 기세를 이었다.
 준결승에서 비비안 퐁(홍콩)을 14-9로 무찌르고 올라선 결승에선 은돌로와 연장 접전까지 치렀다. 접전 끝에 11초를 남기고 은돌로의 공격을 피해 점수를 따내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다.
 송세라는 국제펜싱연맹(FIE)과 인터뷰에서 “나에겐 큰 행운이었고, 기억에 남는 날이었다”며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개인전에 출전한 최인정(계몽시청)은 9위, 강영미(광주광역시청)는 19위, 이해인(강원도청)은 32위로 마무리했다.
 같은 날 열린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는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이 5위에 머물러 메달 확보에 실패했다. 김준호(경기화성시청)는 13위,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은 17위,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은 18위로 개인전을 마쳤다.

KLPGA 생애 첫 우승 윤이나, 세계랭킹 114위→69위 점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에버라겐 퀸스 크라운에서 우승한 윤이나(19)가 세계랭킹 100위 이내에 진입했다.
 19일 발표한 주간 여자 세계랭킹에서 윤이나는 지난주 114위에서 45계단 상승한 69위에 올랐다.
 윤이나는 지난 17일 끝난 에버라겐 퀸스 크라운에서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생애 첫 KLPGA 투어 우승에 성공했다.
 이 대회에서 윤이나와 우승 경쟁을 벌인 끝에 어렵게 준우승한 박지영(26)도 지난주 세계랭킹 68위에서 10계단 상승한 58위가 됐다.



고진영(27)이 1위를 유지한 가운데 이민지(호주), 넬리 코다(미국),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2-4위로 뒤를 이었다. 뉴스



독보적인 성적 올린 KBO '슈퍼루키'는?

1990년대 양준혁, 박재홍, 이병규, 2000년대 들어 김태균,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오승환(삼성 라이온즈)은 이미 KBO리그의 '별'이 됐고, 이정후(키움 히어로즈), 강백호(KT 위즈) 등은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다.
 KBO리그 40년을 대표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신인왕' 출신이라는 것이다.
 올 시즌에는 전의산(SSG 랜더스)과 김인환(한화 이글스), 김현준(삼성), 김도영(KIA 타이거즈) 등이 신인왕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레전드급 성적을 올린 선수들 중에서 신인왕을 가져가지 못한 선수들이 많다. 송진우, 이종범, 이승엽 등 불세출의 선수들도 신인왕을 수상하지 못했다.
 그만큼 신인왕 수상은 실력과 함께 운도 따라줘야 한다.
 신인 선수 중 가장 독보적인 성적을 올린 투수는 류현진이다.
 류현진은 2006년 한화 유니폼을 입고 30경기(201%이닝)에 등판해 18승 6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23의 성적을 올렸다. 탈삼진 204개는 역대 신인 최고 기록이다. KBO리그 최초로 신인 3관왕에 MVP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류현진은 강렬한 데뷔 시즌을 치렀고, 향후 한국 야구계를 이끌 투수의 등장을 알렸다. 류현진은 7년간 약재 한화에서 98승을 올린 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했다.
 류현진 외에 루키 시즌에 18승을 올린 투수가 있었다.
 1986년 LG 트윈스의 전신 MBC 청룡 김

진우는 37경기(229%이닝)에 등판해 18승 6패 평균자책점 1.80의 눈부신 성적을 남겼다. 그러나 다음해 12승을 올린 김진우는 뺑소니 교통사고 여파로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비운의 에이스로 남았다.
 1983년 김시진(삼성), 1992년 염종석(롯데 자이언츠)도 신인 시즌에 17승을 올리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1986년 성준(삼성)과 1989년 이강철(해태 타이거즈)은 데뷔 첫해 15승을 수확했다.
 루키 시즌에 가장 많은 세이브를 올린 선수는 조용준이다. 조용준은 2002년 28세이브(9승 5패 4홀드 평균자책점 1.90)를 올렸다.
 엄청난 슬라이더를 던져 '조라이더'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용준은 데뷔전 이후 연속 이닝 무실점(18이닝), 무자책(29%이닝)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신인 선수 중 승률 100%의 선수도 있었다. 1992년 오봉욱(삼성)은 38경기(126%이닝)에 등판해 13승 무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3.55를 기록했다.
 신인 시절에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타격의 달인' 장효조(삼성)다. 장효조는 9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69(317타수 117안타)를 기록했다. 장효조는 그해 출루율(0.475), 장타율(0.618) 1위에도 등극했다. 장효조는 10년간 타율 0.331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통산 타율 2위에 해당한다.
 KBO리그 신인 3할 타자는 역대 14명밖에 없었고, 1998년 이후에는 이정후(2017년 타율 0.324)가 유일하다.

역대 신인 다승 1위 류현진·김진우 이정후, 신인 최다안타·득점 1위 박재홍, 신인 최다 30홈런 터뜨려 홈런왕·타점왕 최초 '30-30' 달성
 이정후는 신인 한 시즌 최다안타(179안타), 최다득점(111득점) 기록을 갖고 있다.
 신인 최다 안타 2위는 1994년 LG의 서용빈(157안타)이다. 신인 선수 중 150안타 이상을 친 선수는 4명에 불과하다. 강백호는 2018년 153안타, 1997년 '적토마' 이병규는 151안타를 쳤다.
 루키 최다 홈런은 박재홍(현대)이 갖고 있다. 박재홍은 1996년 30홈런을 터뜨려 홈런왕에 등극했다. 박재홍은 1996년 KBO리그 최초 30(홈런)-30(도루)을 달성했다.
 박재홍은 1996년 타율 0.295에 30홈런 108타점 36도루의 성적을 올렸다. 108타점은 신인 최다 기록이다. 박재홍은 그해 타점왕도 거머쥐었다.
 데뷔 첫해 20홈런을 때려낸 루키는 총 7명 뿐이다. 2018년 강백호는 어렵게 29홈런에 그쳐 30홈런 달성에 실패했다. 강백호는 KBO리그에 8명 뿐인 데뷔 첫 타석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정후의 아버지 이종범은 1993년 신인 역대 최다 도루를 기록했다. 이종범은 73개의 도루를 성공해 그해 도루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1위는 롯데 전준호(75도루)였다.